

투데이 칼럼

북한 최전방 자원입대

4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북한은 3월이 졸업 시즌이다. 그런데 3월 내내 북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전방 자원입대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다. 북한에선 졸업 후 군 입대가 일반적이지만, 이를 한 달 넘게 집중 선전한다. 전방 자원입대를 선전에 활용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고급중학교는 우리의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한다.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최전방 국경 초소로 자원입대를 선택한다. 평양시의 경우 이들의 결정을 기리는 축하 행사를 연다. 조국 보위 초소에 설 것을 결의한 졸업반 학생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아직 옛날 얼굴의 졸업생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감정은 위원장에게 강한 충성심을 드러낸다. 북한 당국도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인물을 앞세워 이들의 결의를 더욱 북돋운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최전방 자원입대가 평양시 학생들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졸업반 학생들의 나이는 단 17세로 남성은 10년, 여성은 7년의 복무 기간이 정해

져 있으며, 3월 말 졸업식을 마친 뒤 곧바로 징집돼 의무 복무를 시작한다. 이처럼 비교적 자연스러운 입대 과정을 북한이 '최전방 자원입대'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데는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다. 최근 열흘간 진행된 한미 연합 훈련 '자유의 방패'에 대한 북한의 대응 차원이다. 실제 북한은 청소년들의 자원입대 배경으로 한미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또 반미·반한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6·25 전쟁 참전 노병까지 등장시켜 선전에 활용한다. 그런데 북한 당국의 주장처럼, 청소년들이 최전방 복무를 진심 어린 충성심에서 자원했는지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여러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군

입대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감지돼 왔기 때문이다. 충성심이 옛날 사람들은 많았지만 지금 세대는 극히 적다. 물론 탈북민들의 주장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청년들의 전방 자원'이라는 북한 당국의 선전은 반미·반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의 사상을 다잡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또 북한은 최근 갈수록 약화되는 충성심을 의식한 듯 청년 세대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최전선 자원을 강조함으로써 충성심에서 이탈하려는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지도 풀이된다. 나아가 북한 당국이 '자원' 형식을 반복하는 것은, '자발적 충성'이라는 명분 아래 군인들을 군사 자원으로 보다 유연하게

동원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북한 군복무 기간은 때에 따라 10년에서 13년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8년으로 줄었다가 다시 10년으로 늘어나는 등 계속 바뀐다.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탄원해서 군대에 가기 때문에 복무 기간이 늘었다 줄었다 해도 의견을 낼 수가 없다. 지난 몇 년간 북한에서는 살림집, 온실농장, 지방공업 공장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이 현장들에 어김없이 군인들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노동 강도가 워낙 세고 근무 환경도 열악하다 보니, 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견디지 못해 탈영하는 군인들이 많다. 더구나 올해 10월엔 노동당 창건 80주년, 내년엔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북한에선 더 많은 군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당국으로서는 자유롭게 동원할 수 있는 청년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북한 청소년들의 '최전방 자원입대'를 북한이 충성의 상징이자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삼을수록, 청년 세대의 고단함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복규
논설위원



사설

전주 청춘별채 입주 경쟁

전주시가 청년 주거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추진한 '청춘★별채' 신규 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약 53대1을 기록했다. 신규 23호(25명) 공급에 1322명이 지원했다. 시는 4월 중 자격 검증을 거쳐 '청춘★별채'의 예비 입주자를 확정하고, 상반기 중으로 신규 입주자들의 입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올해 총 82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에서는 신규 입주 23호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자 47명의 임대료도 신규 입주자 계약 시기에 맞춰 월 1만 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12호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전주시 청년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올해 '청춘★별채' 시행에 따라 월

1만 원으로 대폭 낮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또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 및 청년 맞춤형 지원이 결합하면서 인기몰이를 했다. 전주시는 청년층의 높은 주거 수요를 반영해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 59호가 추가 공급되는 등 오는 2028년까지 신축 주택을 포함한 총 210호의 '청춘★별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주택은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 미혼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수요를 반영해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미국 43개국 입국 제한 검토

미국이 최근 자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해당 국가가 무려 43개국에 이르고 있어 그 파장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포함한 43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3월 14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몇 주 전 국무부가 입국 제한 국가 목록을 작성했으며 현재 대사관과 각 정부 부처, 정보기관 등이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목록은 최종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되는 '적색' 국가 명단에는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부탄, 쿠바,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 나

라가 포함됐다. 이어 제한적으로 여행이 차단되는 '주황색' 국가에는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아이티,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시에라리온,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 나라가 이름을 올렸다. 마지막으로 '노란색' 국가에는 앙골라와 캄보디아 등 22개 나라가 포함됐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60일이 주어졌다.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적색이나 주황색 국가 명단으로 옮겨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에 취임하면서 국무부가 심사 정보가 너무 부족해 입국을 일부 또는 전면 중단해야 할 국가를 식별하도록 요구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국무부는 행정명령에 따라 60일 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 명단을 백악관에 보고할 계획이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모두가 일론을 증오했”



지난 10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한 시위 참가 여성이 페차 예정이던 테슬라 자동차를 부수고 있다. 이 시위는 일론 머스크 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반대하는 '모두가 일론을 증오했' 단체가 주최했다.

“우리가 미안해”



지난 10일(현지 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최근 정부가 인보 위협을 이유로 수십 명의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입국을 금지한 것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세르비아 정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시위대는 이러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시위에 나서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